



천주교 전주교구

#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두 열 아우구스티노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김 평 기 토 마 스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5023-6908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테살5,17)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오후 6시(학생미사)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교황님의 기도 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화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 ◆ 레지오마리아에 훈화(6/20~6/26)\_보좌신부

#### “우리 모두의 아버지”

기도는 분명 하느님과 나 사이의 침묵 속에서 서로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가 자기 안에만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에서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빵을 청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하여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개인주의를 위한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인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며 형제자매이고 기도한 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안에서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의 모습도 하느님 앞에 가져가며, 자신이 겪은 고달픈 일들에 대해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연민’을 느끼며 서로를 더욱 ‘가엾이’ 여깁니다. 이 마음이 커져 우리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느님처럼 언제나 모든 이에게 착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형제자매입니다. 인생이 저물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40).

누릉 천하	수진가새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이곳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전주대건신협
<b>수제 누릉지 전문점</b> 명절 선물세트 각종 행사 답례품 <b>김형태(올리아노)</b> <b>박태연(마르타)</b> 풍남문 정문 앞 H.P. 010-8642-9105 ☎282-9005	약사 <b>이현명(사도요한)</b> 약사 <b>신지현(베르베두아)</b> 덕진구 세병남로25 (송천동2가) (에코삼성정형외과, 에코라인 의원, 에코롯데리아건물) ☎272-8066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b>한삼숙(베로니카)</b> <b>김정민(테레사)</b>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 010-3621-6007 ☎282-9241		<b>예금상당, 대출상당은          전주대건신협에서!</b> 본점 ☎288-0191 <b>이사장          송각호(바오로)</b> 010-3675-4297

